

# 대구지역 사찰 간행본의 서지적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 by Temples in Deagu Area

박 광 헌 (Park, Gwang-Hun)\*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주제별 분포                 |
| 2. 사찰별 간행 전적       | 3.2 간행시기 및 판종별 분포          |
| 2.1 동화사            | 3.3 간행처별 분포 및 간행인본 自刹 소장현황 |
| 2.2 파계사            | 4. 맺음말                     |
| 2.3 부인사            | <참고문헌>                     |
| 2.4 용연사            |                            |
| 3. 대구지역 사찰 간행본의 분석 |                            |

## < 초 록 >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의 간행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구지역은 팔공산과 비슬산 권역에 유서 깊은 사찰들이 존재하지만 이곳에서 간행된 전적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었다. 대구에는 현재 전통사찰로 19개의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간행 사실 및 인본이 확인되는 사찰은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 용연사 등의 4곳이며 확인된 간행본은 총 18종이다. 동화사에서 가장 많은 15종을 간행하였으며, 나머지 세 곳의 사찰에서 각각 1종씩의 간행본이 확인되었다. 해당 사찰에서 간행한 인본이나 책판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각 사찰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수집 및 보존 활동을 통해 사찰의 역사성 재고가 필요하다.

要語: 대구지역 간행본, 사찰 간행본,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 용연사, 대구지역 사찰, 불교전적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editions of Buddhist temples in Daegu. There are historical temples in the area of Palgongsan Mt. and Biseulsan Mt. in Daegu, but there are no studies on the history published here. There are 19 temples registered as traditional temples in Daegu. Among them, the published facts and the oldbooks are confirmed at four places: Donghwasa, Buinsa, Paekgasa, and Yongyeonsa. There are a total of 18 confirmed editions. The largest number of species was published in the Donghwasa Temple, and one of each of the remaining 3 temples was identified. It is very rare to keep oldbooks or wood blocks at the tem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ultural properties of each temple and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temple through collection and preservation activities.

Key words: Publication in Daegu, Temples Publication, Buddhist Documents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atssara@hanmail.net)

투고일: 2019년 2월 18일 최초심사일: 2019년 3월 4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8일  
서지학연구, 제77집, 81-102,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81]

## 1. 머리말

대구는 고려시대에 초조대장경의 판목을 보관한 부인사가 있고, 조선시대에는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한 嶺營藏板이 간행되어 서울·전주와 함께 3대 거점 출판인쇄 도시였다. 근대기에는 재전당서포 등의 출판사에서 達板 坊刻本을 간행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산동 인쇄골목을 중심으로 근대인쇄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출판인쇄문화를 바탕으로 현재는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대구지역 출판인쇄의 역사 중에서 官을 중심으로 간행한 영영장판에 대한 연구와 상업적 출판인쇄 달판 방각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전적 간행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대구는 북쪽의 팔공산과 남쪽의 비슬산이 에워싸 보호하고 있는 지역으로 팔공산과 비슬산은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사찰이 창건된 불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팔공산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초조대장경을 보관하였던 부인사와 영조의 願刹이었던 과계사 등의 사찰이 유명하며, 비슬산은 『삼국유사』를 저술한 普覺國師 一然이 활동한 산으로 용연사, 유가사 등의 사찰이 남아 있다.

16세기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桐華寺, 地藏寺<sup>1)</sup>, 仙槎菴, 夫人寺, 慈華寺, 把溪寺, 菩提寺 등의 7개의 사찰이 소개되어 있는데 반해 18세기에 제작된 『大丘邑志』<sup>2)</sup>의 ‘佛宇’條에는 桐華寺, 龍淵寺, 湧泉寺, 雲興寺, 夫仁寺, 把溪寺, 南地藏寺, 北地藏寺, 臺山寺, 臨水寺, 隱寂庵, 鞭羊庵, 仙槎菴 등 13개의 사찰이 수록되어 있다. 1899년에 제작된 『大丘府邑志』에는 慈華寺와 玉泉寺가 추가되었다가, 1907년에 제작된 『大丘府邑志』에는 臨水寺와 隱跡菴, 鞭羊菴 등이 삭제되고 1899년에 포함되었던 慈華寺는 다시 사라졌다. 임수사는 현재 臨休寺, 은적암은 현재 隱寂寺로 판단된다. 이중 용천사와 대산사는 현재 청도군에 속하며, 편양암과 선사암은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경북에 있는 여러 사찰의 간행본과 출판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대구지역의 사찰 간행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는 전적간행 사실이 확인된 대구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필사본을 제외한 간행내역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대구 사찰의 출판활동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1) 당시 표현된 地藏寺는 수성현의 南地藏寺를 말한다.

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 대구유형문화재 제 55호, 영조 44년(1768)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읍지 중의 하나이다.

## 2. 사찰별 간행 전적

현재 대구에 등록된 전통사찰<sup>3)</sup>은 <표 1>과 같다. 이 중 전적을 간행한 사찰은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 용연사 등의 4곳이다. 나머지 사찰에는 현존 판본 및 책판·간행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1> 대구지역 전통사찰 현황<sup>4)</sup>

	사찰명	주소	종단
1	안일사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440(대명동 1480-1번지)	조계종
2	법장사	대구광역시 남구 고산3길 96-4(봉덕동 산148번지)	조계종
3	은적사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120(봉덕동 1572번지)	조계종
4	서봉사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34	선학원
5	임휴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21	조계종
6	운흥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헐티로 1068 (오리 151)	조계종
7	남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남지장사길 95 (우록리 872)	조계종
8	용연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길 260 (반송리 882)	조계종
9	유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유가사길 161 (양리 144)	조계종
10	소계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휴양림길 228 (용리 4)	조계종
11	현풍포교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27길 54-6 (부리 382)	조계종
12	현풍포교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32 (본리리 1137-1)	조계종
13	화장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2길 41 (천내리 516-1)	조계종
14	관암사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613-35	태고종
15	관음사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672	조계종
16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조계종
17	복지장사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620	조계종
18	부인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356-1	조계종
19	파계사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	조계종

### 2.1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팔공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동화사는 대구를 비롯하여 청도, 성주, 칠곡 등에 산재한 90여 개의 사찰을 아우르는 대사찰이다. 동화사를 품고 있는 팔공산은 한국의 대표

3)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지급의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통사찰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교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을 말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현황(2018.12.31.기준).  
사찰명이 진하게 표시된 곳은 간행사실이 확인된 사찰이다.

명산 가운데 하나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서 公山, 中岳, 父岳 등으로 불린다. 이 가운데 ‘중악’은 신라 五岳의 중앙이라는 뜻을 지닌다. 팔공산은 오악의 중심으로써 신라가 국가 차원에서 숭배해온 靈山이다.<sup>5)</sup>

동화사는 대구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대구지역의 사찰 중 간행 전적이 가장 많은 사찰이다. 현존하는 인본은 주로 조선시대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다양하며, 조선시대 이전 인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동화사에서 간행된 인본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1.1 妙法蓮華經

『묘법연화경』은 1436년경 동화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成達生 書體 계열의 판본이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魚尾와 계선이 없고, 판심제는 ‘法’이다. 발문은 본문의 판식과는 달리 上下內向 黑魚尾에 黑口로 되어있다. 본문은 저본의 판식을 따랐지만 발문은 새롭게 조성하면서 판식 또한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比丘信心 … 解蓮經重刊于公山桐華寺 … 時正統元(1436)年七月吉日老人隱夫跋”이라는 기록이 있어 比丘 信心과 義一이 重刊하여 1436년경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는 孝寧大君과 判院事 李順蒙<sup>6)</sup>의 발원으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438년의 실록 기사<sup>7)</sup>에는 이순몽이 효령대군의 저택에 거동하였다가 胡床에 걸터앉은 불경을 저질렀다고 사헌부로부터 죄줄 것을 상소가 올라왔으나 윤택하지 않은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효령대군과 이순몽이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이어서 書寫者로 惣制를 成達生을 쓰고 이어 成概의 이름이 있다. 하지만 본문의 글씨를 보면 새롭게 쓴 것이 아니라 성달생, 성개 형제가 쓴 대자암 판본을 번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사자 다음으로는 大慈住持 隱庵을 비롯한 시주자의 명단이 기입되어 있으며, 각수로는 玄俊, 洪惠, 信遇, 志修, 性从, 弘惠 등이 참여하였고, 信心과 義一이 화주를 맡았다는 기록이 있다.

현존하는 동화사 간행 『묘법연화경』은 <표 2>와 같이 송광사 정보박물관, 기림사 등에 남아 있다. 권1~7의 전질이 현존하는 소장처는 없으며 권1, 권2는 현존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完帙의 현존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권1, 권2에 해당하는 인본을 찾기 위해서는 정밀한 판식 및 서체연구가 필요하다.

5) 강삼혜, “팔공산 동화사 연혁,” 『팔공산 동화사』 (대구: 대구광역시, 1997), 203.

6) 이순몽(1386~1449)은 조선전기의 武臣으로 佐命功臣 李膺(1365~1414)의 아들이다. 이응은 태종 3년(1403)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만들 때 提調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영천에는 이순몽의 집이었으며, 현재는 이순몽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으로 쓰이고 있는 崇烈堂(1433년 건립)이 남아 있는데 보물 제521호로 지정되어 있다.

7)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 9월 18일.

<표 2> 1436년 동화사 간행 『묘법연화경』 현존본

	소장처	권차	수량	비고
1	송광사 정보박물관	권3~4	1책	
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권4~7	1책	
3	기림사	권4~7	1책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 보물 제959-4-6호
4	영천역사문화박물관	권4~7	1책	
5	개인소장	권4~7	1책	발문 마지막장 낙장
6	개인소장	권4~7	1책	5권 1-34장 낙장

### 2.1.2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燄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摠持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불설일체여래보편광명염만청정치성사유여의보인심무능승총지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는 당나라에서 활동한 인도의 승려 不空이 漢譯한 것으로 다라니를 읽고 쓰는 공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수구다라니’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동화사의 석가모니불좌상<sup>8)</sup>과 약사불좌상(左)<sup>9)</sup>의 복장에서 발견된 낱장 朱墨 인쇄본이다. 전체 다라니의 내용은 1장으로 되어 있으며, 말미에 “康熙四十二年癸未二月日大丘八公山桐華寺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703년에 동화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이점은 간기에서 동화사 명칭을 일반적인 ‘華’ 대신 ‘花’로 표현한 것이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계선이 있으며, 上下內向 4瓣 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1703년에 간행된 인본 외에 현재 동화사에는 동일서명의 『불설일체여래보편광명염만청정치성사유여의보인심무능승총지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의 목판 1판이 소장되어 있는데 “世尊降生二千九百四十年癸丑六月日”와 “大邱府八公山桐華寺藏板” 등의 기록이 있어 동화사에서 1913년에 판각한 경판임을 알 수 있다. 이 목판에는 다라니와 『佛說八萬大藏經目錄』과 偈頌이 함께 새겨져 있다.

### 2.1.3 觀世音菩薩本心微妙六字大明王眞言

『관세음보살본심징묘육자대명왕진언』은 동화사의 석가모니불좌상과 약사불좌상(左)의 복장에서 발견된 낱장 인쇄본으로 전체 다라니의 내용은 1장으로 되어 있다. 불복장 안에서는 朱墨으로 인쇄된 총 103매의 중복본이 발견되었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고, 판심 없이 12행으로 되어 있다. 『淨法界觀門』, 『觀世音菩薩本心微妙六字大明王眞言』, 『護身眞言』, 『七十七俱肢佛母心大准提陀羅尼』, 『護身眞言』 순으로 진언이 수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雍正三年乙巳三月日桐華寺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725년에 동화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석가모니불좌상(본존)은 1727년에 조성된 木佛像이다.

9) 약사불좌상(左)은 석가모니불좌상의 脇侍로 1727년에 조성된 木佛像이다.

### 2.1.4 八公山桐華寺事蹟

『팔공산동화사사적』은 1725년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을 재건하고 삼세불좌상과 삼장보살도 등을 새로 봉안하는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마무리하며, 1732년에 이에 대한 기록과 사적을 함께 모아 편집한 책이다.<sup>10)</sup>

『팔공산동화사사적』은 李宜顯(1669~1745)이 쓴 『八公山桐華寺事蹟記』, 『心地王師行蹟』, 『重創年代成功人員列錄』, 箕城 快善(1693~1764)이 쓴 『事蹟記序』, 文湜이 쓴 발문, 兌華가 쓴 『事蹟跋』으로 구성되어 있다. 兌華의 발문 다음에는 “崇禎紀元後再壬子上元玉山後人張漢佐書”라는 書者의 기록이 있어 1732년에 내용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말에는 간행에 참여한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팔공산동화사사적』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판식은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으며 6행 14자로 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내향 4판 화문어미이다. 목판본으로 간행된 현존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팔공산동화사적』은 9행 25자로 되어 있어 목판본과는 상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 2.1.5 大方廣佛華嚴經 卷40(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동화사에서 간행한 『대방광불화엄경』은 반야가 漢譯한 40권본(貞元本 華嚴經) 중 권40에 해당하는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만을 간행한 것이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고 8행 17자로 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내향 4판 화문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華行’이다. 권수제를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으로 적고 하단에 ‘實’이라는 函次를 기록하고 있어 재조대장경의 내용을 저본으로 하여 내용을 옮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1)</sup> 권수의 변란 우측에는 ‘梵玠願刻’이라는 각수명이 기입되어 있다.

권수에는 快善이 쓴 서문 『新刊華嚴經行願品序』이 수록되어 있다. “乾隆元年丙辰二月日公山僧 快善焚香謹書”라는 기록을 통해 기성 齋선이 1736년에 서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는 간행에 참여한 여러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을 쓴 齋선이 교정도 말아 간행의 주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乾隆元年丙辰二月日慶尙道大丘八公山桐華寺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736년 2월에 동화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화사 간행 『대방광불화엄경 권40』은 동화사를 비롯하여 범어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어 동화사 간행본 중 현존수량이 많은 편이다.

10)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대구: 국립대구박물관, 2009), 13.

11) 재조대장경의 정원본 『대방광불화엄경』 중 권31~40까지가 ‘實’函에 해당한다.

### 2.1.6 禮懺佛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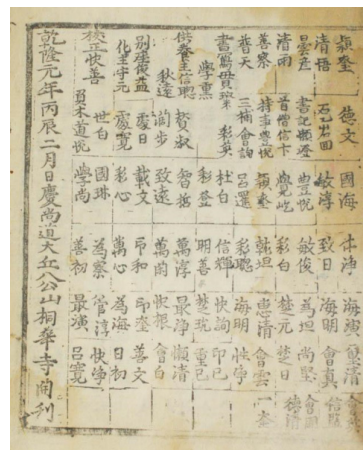
『예참불호』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내용 중 절하는 의식에 해당되는 부분과 독송해야 하는 여러 佛號 중에 일부를 발취하여 제작한 의식집이다. 현재까지 동화사에서 간행된 인본이 유일하며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과 개인소장본 등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고 8행에 字數는 16~17자로 불규칙적이며 상하내향 4관 화문어미로 되어 있으며 판심제는 ‘禮佛’이다. 권말에는 간행에 참여한 인원이 수록되어 있으며, “乾隆元年丙辰(1736)二月日慶尙道大丘八公山桐華寺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방광불화엄경』 권40과 간기가 같아 같은 해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행참여 인원과 간기가 포함된 마지막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방광불화엄경』 권40과 간기의 서체와 내용이 동일하며, 끊어짐도 일치하여 같은 판목에서 인쇄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방광불화엄경』 권40의 간기



『예참불호』의 간기

<그림 1> 동화사 간행 『대방광불화엄경』 권40과 『예참불호』의 간기 비교

### 2.1.7 佛說阿彌陀經(諺解)

동화사에서 간행한 『佛說阿彌陀經』은 세조 11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인본의 번각본이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으며 8행 19자로 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내향 4관 화문어미에 白口와 黑口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동화사판 『佛說阿彌陀經』 중 보존상태가 좋은 인본의 경우는 1753년 팔공산 동화사 간행한 『불설아미타경』 간경도감판 번각본과 『왕랑반혼전』 그리고 1741년 팔공산 修道寺에서 간행한 『臨終正念訣』과 『父母孝養文』이 합철되어 있다. 권수에는 1753년에 箕城 快善이 쓴 『佛說阿彌陀經刊行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乾隆十八年十一月日公山僧快善”이라

는 기록이 있다. 동화사에서 번각한 『불설아미타경』의 변란 좌우 여백에는 시주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大施主로는 崔道雲, 處行, 信拯, 順學, 敏悅, 鄭世伯, 張重華 등이 있으며, 願刻에는 莊演, 務悅, 崔桂華, 有澄, 瑞鵬父母, 幻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간경도감판 『불설아미타경』은 후에 여러 번각본이 간행되었는데 1588년의 雙溪寺版, 1702년의 雲興寺版, 1753년의 桐華寺版 등이 있다. 이들 번각본에는 간경도감의 간기를 그대로 관각하고 있으며, 권수제 다음 행에는 “御製譯解”라는 기록이 있다.<sup>12)</sup> 간경도감판 번각본 3종의 현존본은 <표 3>과 같다.

<표 3> 간경도감판 번각본 『불설아미타경』 현존본

刊年	간행처	소장처	비 고
1558	쌍계사	고려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1702	운흥사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계명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보림사	보림사 사천왕상복장유물(날장)
1753	동화사	도쿄대학 오구라문고	『서문』(快善), 『왕랑반혼전』, 『臨終正念訣』, 『父母孝養文』 합철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성암고서박물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서문』(快善), 『왕랑반혼전』, 『臨終正念訣』 합철
		계명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문 및 합철 없음
조명기 소장	서문 및 합철 없음		

### 2.1.8 王郎返魂傳(諺解)

『왕랑반혼전』은 念佛功德을 고취시키기 위한 소설이다. 불교를 믿지 않는 王思机 인물에게 죽은 아내가 꿈에 나타나 내일 죽을 것이니 아미타불을 모시고 염불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후에 염라대왕이 염불의 공으로 부인과 함께 환생을 시켜주니 독실한 불자로 새 삶을 살아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내용이다. 『왕랑반혼전』은 내용이 간략하여 주로 다른 경전과 함께 습綴한 경우가 많다.

동화사에서 간행한 『왕랑반혼전』은 1753년에 간행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佛說阿彌陀經』(諺解)과 함께 간행되었다. 이 밖에 인본은 1637년 華嚴寺版, 1776년 海印寺版, 1787년 禪雲寺版 등이

12) 박광현, “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 연구,” (博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7), 144-145.

남아 있는데 합철본과 함께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동화사 간행 『왕량반흔전』의 마지막에는 간행에 참여한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판재를 물에 담가 수액을 빼는 浮板은 楚閑이 맡았으며, 크기에 맞게 목재를 자르고 판면을 다듬는 鍊板은 碩坦, 來往에는 性贊 등이 담당하였다. 願刻都監은 楚玠, 惠鵬가 맡았다. 동화사 간행본임에도 불구하고 “銀海寺秩”의 명단이 60명 이상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팔공산에 소재하는 은해사(영천)에서도 대규모의 지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자금을 담당하는 都監에 信巡, 책의 校正에 性衍, 부처님 앞에 음식을 차리는 別座에 處仁, 밥을 짓는 供養主에 賢察, 來往에 太澄이 각각 담당하였다. 앞서 來往을 담당한 性贊은 동화사에서 나중에 언급된 太澄은 은해사에서 각각 보내 업무를 조율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4> 『왕량반흔전』의 판본과 합철본 비교

간행년도	간행처	합철본	序文 作者	소장처	비고
[1304]		『佛說阿彌陀經』		동국대학교 도서관	“『窮願集』云”으로 수록
1637	화엄사	『勸念要錄』	懶庵 普雨	서울대학교 일사문고	책판 현존(화엄사 소장)
1753	동화사	『佛說阿彌陀經』	箕城 快善	도쿄대학 오구라문고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성암고서박물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일사문고	
1765	홍률사	『念佛普勸文』	明衍	계명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책판 현존(해인사 소장)
1776	해인사	『念佛普勸文』	明衍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책판 현존(해인사 소장)
1787	선운사	『念佛普勸文』	明衍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 2.1.9 念佛普勸文

『염불보권문』은 『禮念彌陀道場懺法』을 저본으로 하여, 1704년에 경북 예천 용문사의 明衍이 내용을 뽑아내어 요약하고 자신의 글을 비롯한 여러 경전의 문구와 진언, 계송 및 『서왕가』, 『인과문』 등의 가사를 수록하여 편집한 책이다. 이후 『염불보권문』은 수도사(1741년), 동화사(1764년), 홍률사(1765년), 용문사(1765년), 해인사(1776년), 선운사(1787년) 등에서 간행되며 18세기에 유행한 불교 의식집이다. 여러 판본이 있지만 편저자인 명연의 『大彌陀懺略抄要覽普勸念佛文序』가 권수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동일하다.

동화사 간행 『염불보권문』 중 간기가 명확한 현존본은 영남대학교 도서관 陶南文庫 소장본이 유일하며 “乾隆二十九年甲申六月日慶尙左道大丘八公山桐華寺移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764년

에 동화사로 옮겨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명대학교 소장 『염불보권문』은 간기가 없지만 인본의 비교를 통해 동화사 간행본임이 확인된다.

#### 2.1.10 仁嶽集

『인악집』은 仁嶽義沾(1746~1796)의 문집으로 입적 1년 후인 1797년 제자 聖岸에 의해 간행되었다. 1808년에 건립된 仁嶽大師碑가 동화사에 남아 있으며 당시 경상도관찰사인 金羲淳이 비문을 지었다. 또한 동화사에는 18세기 말에 제작된 『仁嶽大師義沾眞影』이 남아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으며 10행 20자로 되어 있다. 판심에는 어미는 없이 “仁嶽集”이라는 판심제와 卷次, 張次만이 기입되어 있다. 본서의 권수에는 1797년에 쓴 洪直彌의 서문이 있으며 본문은 총 3권으로 되어 있다. 권1은 시 77수로 되어 있다. 권2는 『龍珠錄』, 疏 4편, 祝文 1편, 祭文 1편, 序 1편, 記 10편, 碑文 1편, 有功錄 2편, 上樑文 4편으로 되어 있으며 권2의 말미에는 “八公山桐華寺留版”이라는 간기가 있다. 권3은 書 3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3 말미의 “聖上二十一年丁巳流火閏月日慕溪門人喜聞謹書”라는 기록을 통해 1797년에 회문이 書寫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禹載岳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성안이 쓴 『仁嶽和上行狀』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성암고서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2.1.11 淸州韓氏世譜

『청주한씨세보』는 동화사에서 1859년에 목활자로 간행한 족보이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계선이 있고 10行 21자로 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내향 4관 화문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淸州韓氏世譜’이다. 권수에는 『淸州韓氏派譜序』라는 서문에 이어 『韓氏源委錄』·『殷太師箕子譜系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崇禎紀元後四乙未十一月日桐華寺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 1859년에 동화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관에 소장된 인본은 알려진 것이 없으며 개인소장본이 남아 있다.

#### 2.1.12 昌寧曹氏族譜：侍郎公派

『창녕조씨족보: 시랑공파』는 1862년 동화사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족보이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고 世別로 7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판심은 上魚尾는 4瓣, 下魚尾는 6瓣으로 된 특이한 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1860년에 曁瑩承과 崔煥潤이 쓴 서문과 1861년에 徐有薰이 쓴 서문 그리고 1862년에 南淳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桐華寺重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발문을 쓴 1862년경에 동화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알려진 현존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2518-78-8)이 유일하다.

### 2.1.13 成佛隨求大陀羅尼

『성불수구대다라니』는 목판이 동화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좌측 마구리는 유실되고 없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계선이 있으며 40행에 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전면에 시주질이 陰刻되어 있는데, 武兼이라는 승려가 자신의 부모를 비롯하여 조부모, 외조부모, 스승 脂月堂 印慧를 위해 목판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후면 말미에는 ‘同治五年丙寅八月八公山 …’의 기록이 남아 있어 1866년 8월 팔공산에서 판각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이후는 판독이 어려워 구체적인 간행처는 확인할 수 없다. 목판의 상·하단부에 판목의 균열이 확인되고, 마구리도 유실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sup>13)</sup>

비록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간행처가 확인되지 않으나 동화사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고에 포함하였다.

### 2.1.14 娑婆教主釋迦如來舍利塔碑銘

『사바교주석가여래사리탑비명』은 許薰(1836~1907)이 내용을 썼으며 1902년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허훈은 경북 선산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舫山이고 본관은 김해이다. 1896년 경북 眞寶義陳을 결성하여 의병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안동, 영해, 영양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1905년 동생인 의병장 許薦에게 토지 3,000여 마지기를 팔아 군자금을 제공하였고, 무장 항일투쟁 중 1907년 8월 23일 작고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사바교주석가여래사리탑비명』의 현존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이 유일하다. 標題는 “釋尊舍利塔廟緣起序”라고 목서로 썼으며, 표지의 우측 하단에는 “桐華寺”라는 목서가 있다. 표지의 가운데에는 “桐華寺摠攝印”이라는 朱墨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卷首題는 ‘娑婆教主釋迦如來舍利塔碑銘’으로 쓰고 다음 행에는 ‘房山居士金州許薰撰’이라고 저자를 표기하였다. 이어 ‘八公山桐華寺奉安’으로 쓰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계선이 있으며 10행 17자로 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내향 4판 화문어미에 판심제는 ‘碑銘’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의 “壬寅七月 日”이라는 기록을 통해 1902년에 목활자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는 연화질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緣化秩

都監 庸隱泰義, 別座 義雲在浩, 化主 晦應石柱, 月松啓俊, 萬許在允, 混應喜宇, 普曇華龍, 碧山贊奎, 祇林寺 度河字典, 今將 性坡祺杉, 中岳學曄, 片將 性堅, 學默, 仗遠, 允一, 陣書記 明信, 智演, 僧統 六庵警悟 / 錦明泰衍, 樓鳳台喜, 寶鏡寺 潭湖星明, 寺主 澄潭就英, 慶州南化月鄭氏, 佛糧都監 雪峰敬俠, 豐角大願 花數氏

13)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_2017 전국사찰 목판 일제조사 11-대구광역시 경상북도2』 (서울: 문화재청, 2018), 157.

『사바교주석가여래사리탑비명』의 내용에는 석가모니가 입멸 후 8斛4斗의 사리가 나왔으며, 신라 진평왕 4년(582)에 동화사로 1,200餘顆가 안치되었다가 863년 경문왕이 석탑을 세워 다시 봉안하였고, 876년에 금당 앞으로 석탑이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화사에서 간행하였다는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동화사 금당(현재 금당선원) 동·서 삼층석탑<sup>14)</sup>의 비석에 대한 碑銘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비석은 남아 있지 않다. 1896년 동화사 석가모니 삼세불좌상을 改金할 때 기록한 발원문에 證明을 맡았던 月松啓俊, 晦應錫主 스님이 6년 후인 본 탑의 중수 때는 化主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화사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허훈의 문집인 『舫山集』 권19의 「碑銘」條에는 「八公山桐華寺 重修釋迦如來舍利塔碑銘」이 수록되어 있다. 『방산집』은 저자의 장남 許肅이 주관하여 1909년에 문집을 판각하고 眞城의 覽德亭에 보관하였다. 1910년에는 目錄과 附錄을 추가로 판각하고 金道和가 쓴 墓碣銘을 합하여 23卷 12冊으로 간행하고 남덕정에서 목판을 보관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八公山桐華寺 重修釋迦如來舍利塔碑銘」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목활자본 『사바교주석가여래사리탑비명』의 내용을 축약하고 수정을 가해 문집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 2.2 파계사

파계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의 대표사찰 중 하나이며 동화사의 말사로 속해있다. 파계사는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寺蹟記에도 심지왕사의 창건이후 1605년 戒寬 스님에 의해 중창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대구도호부」조에 팔공산의 현존하는 사찰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파계사는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사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숙종대부터 왕실의 願刹과 같은 위상을 지니면서 많은 불사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靈源 玄應 스님에 의해서 마련된다.<sup>15)</sup> 숙종 22년(1696)에는 숙종이 직접 祝冊을 내렸으며, 영조 8년(1732)에는 왕실에서 御押完文과 어의, 향축 등을 내려 재를 설하고 왕의 장수를 기도하였고, 영조 16년(1740)에는 원통전 관음보살상에 영조의 어의를 복장물로 납입하는 등 왕실과 많은 관계를 맺었다. 이후에도 정조 1년(1777)에는 정조의 어필 편액 「天香閣」이 하사되었으며, 순조 31년(1831)에는 순찰사 박기수가 성조도감을 맡아 왕실의 지원으로 미타암을 중창하였고, 철종 4년(1853)에는 순원왕후가 내탕전을 내려주었으며, 1860년에 백화루를 중수할 때 왕비가 내탕금을 내려주고 자재를 공급해주기도 하였다.

14) 통일신라, 보물 제248호. 1969년 해체조사 때 발견된 필사본 釋迦世尊舍利塔殿結緣文(1912년 필사) 내용과 『사바교주석가여래사리탑비명』의 내용에 현강왕 9월에 금당 아래에 새로 탑을 세우게 되어 부득이 강당 남쪽의 탑을 삼강스님이 강당 위로 옮겼다는 기록이 일치하며, 1544년, 1794년, 1902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중 1902년 중수했다는 연도가 일치함.

15)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14 대구·경북의 전통사찰』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0), 192.

현재 과거사에 소장된 왕실관련 고문서들은 “대구 과거사 왕실 원당 관련 고문서 일괄”로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10종 10점)되어 있다. 한편 “대구 과거사 소장 책판 일괄”이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4호로 지정(5종 86판)되어 있다.

### 2.2.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水陸齋를 행할 때 의식의 절차를 정리해 놓은 책으로 手印과 眞言을 비롯하여, 文式 등이 정리되어 있다. 과거사에서 간행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현재 과거사 보장각에 20판의 판목이 보관중이며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4호로 지정되어 있다. “順治五年戊子七月日慶尙道大丘八公山把溪寺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648년 과거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鍊板은 釋心, 刻手는 覺玄과 靈竺이 담당하였다.

부록에 해당하는 『水陸齋儀疏枋文牒節要』 5판은 편재 동화사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본문의 마지막장인 41장과 부록의 7, 8장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 2.3 부인사

부인사는 동구 팔공산에 위치한 사찰로 부인사의 말사이며 현재의 사찰은 1930년대 초에 비구니 許相得이 중창한 것이 이어져 새로운 법당들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부인사의 전면에는 부인사지가 있는데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인사지 발굴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유적 및 유물의 분포로 본 寺域은 동-서 220m, 남-북 500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부인사는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관이 보관되어 있던 곳으로 경관은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버렸다. 초조대장경관이 모두 소실될 정도의 화재라는 점을 볼 때 상당히 큰 화재로 짐작된다.

부인사와 관련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으며, 사찰의 명칭도 符仁寺, 夫仁寺, 夫人寺 등으로 나타난다. 부인사 관련 연구는 주로 창건사실과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관의 보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자료에는 임진왜란 시기에 파괴되었다고 소개한 경우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지난 발굴조사 과정에서 康熙 16年(1667)과 26年(1687)명이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17세기 후반 무렵 기와를 고치려고 했던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명부전을 이 건하는 불사가 있었는데 현재 이 불사와 관련된 자료 두 점이 전하고 있다. 『부인사명부전이건기』와 『부인사명부전상량문』이 그것인데 두 자료 모두 조선 후기의 고승으로 손꼽는 인악 의침이 1788년에 지은 것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18세기 후반 무렵의 부인사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해서 선당·명부전·미타암·요사 등의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부인사에서 간행된 인본을 통해서도 17세기 부인사의 활동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부인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현존 인본은 『禪門祖師禮懺儀文』이 유일하다.

### 2.3.1 禪門祖師禮懺儀文

『禪門祖師禮懺儀文』은 부인사에서 1660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판식은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으며 7행 14자로 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내향 4판 화문어미에 판심제는 “祖師文”으로 되어 있다. 권수제는 “禪門祖師禮懺儀文”으로 쓰고 하단에 “畫”자를 기입하였다. ‘畫’字는 함차로 생각되나 제조대장경의 함차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표기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예참문』의 書頭에는 예참의식을 전에 행하는 불단의 설치와 등, 꽃, 과일, 차, 탕 등 각종 供具에 관한 내용, 의식 진행시 주의사항, 각자 소임과 직무를 먼저 수록하였다. 이어 석가모니불에 대한 예참의식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靈山會相圖와 說法圖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는 선문 제 1조인 迦葉에서부터 제 33조인 慧能에 이르는 각 조사들에 대한 예참문과 우리나라에 처음 禪을 전한 道義를 비롯하여 梵日, 無染, 玄昱, 道憲에서 普照國師에 이르는 10대 국사에 대한 예참문을 실고 있다. 예참문은 3~7행에 해당하는 좌측 상단부에 판화를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설명을 부가하였다. 권말에는 “畫員 戒熏比丘/ 鍊板 日眞比丘/ 板子 功德 刻大施主 應淨比丘/ 刻 秀行比丘/ 順鶴保體/ 勸化主 鶴淨比丘” 등의 내용이 있어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順治十七年正月日慶尙道大丘地八公山夫人寺開板”이라는 간기를 통해 1660년에 부인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국사찰소장목판집』의 부록 『유간기 불서목판본 목록』에는 부인사에서 간행한 『禪門祖師禮懺作法』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禪門祖師禮懺儀文』과 동일한 간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誤記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인사는 『禪門祖師禮懺儀文』(1660)을 간행하고 1677년과 1687년에는 기와를 제작하여 기와를 보수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4 용연사

용연사는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사찰로 毗瑟山에 자리하고 있는 동화사의 말사이다.

『용연사증수비』에는 신라 말에 보양선사가 용연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용연사사적』에는 신라시대인 912년(신덕왕 1)이라는 연대까지 명시하고 있다. 보양선사는 신라 말 고려 초에 걸쳐 고려를 건국한 태조를 지원하였고, 폐사가 된 鵲岬寺를 다시 일으켜 雲門寺를 창건한 분이다.<sup>17)</sup>

16)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14\_대구·경북의 전통사찰』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0), 116.

17)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14\_대구·경북의 전통사찰』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0), 153-154.

용연사에 대한 조선시대의 기록은 많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중창불사가 계속되었으며 1673년에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석가여래 부도탑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는 200여 칸에 달하는 사찰의 규모를 이루었다고 한다.

#### 2.4.1 晉菴集

『진암집』은 조선 英祖代의 문신 李天輔(1698~1761)의 문집이다. 이천보는 영조 15년(1739)에 급제하여 1749년 이조참판을 지낸 후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지내고 1752년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1761년에는 영의정에 올랐으나 소위 사도세자의 關西地方 遊覽事件<sup>18)</sup>에 영조가 정승들에게 크게 꾸짖어 책임을 물었는데 이때 이천보는 죽음으로 답하였다. 이때 죽은 인물은 영의정 이천보 외에도 우의정 閔百祥(1711~1761), 좌의정 李厚(1694~1761) 등이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진암집』은 정조 38년(1762)에 금속활자인 교서관인서체자로 최초로 간행되었는데 그 해에 黃景源(1709~1787)과 南有容(1698~1773)과 이 쓴 서문과 李鼎輔(1693~1766)와 金陽澤(1712~1772)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목판본으로 번각되었는데 이 번각본에는 李文源(1740~1794)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할 당시인 1781년에 쓴 서문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문원은 이천보의 아들로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문집을 번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문원의 서문에는 “今上之辛丑不肖…始取舊本反刊藏于大邱之龍淵寺”라는 기록이 있어 1781년에 舊本 즉 교서관인서체자 『진암집』을 대구 용연사에서 뒤엎어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용연사 간행 『진암집』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도서관,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 3. 대구지역 사찰 간행본의 분석

#### 3.1 주제별 분포

대구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인본은 대부분 佛書로 子部의 釋家類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부분류 법으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각각 책의 주제에 따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불교 경전류에 해당하는 인본은 『묘법연화경』, 『대방광불화엄경』, 『불설아미타경』(언해) 3종이며, 의식집에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선문조사예참의문』, 『예참불호』, 『염불보권문』 4종이 해당한다. 나머지로 다라니 4종, 문집 2종, 족보 2종, 사적류 1종, 소설류 1종, 비문 1종 등이 있다.

18) 사후 사도세자는 莊獻大王으로 추존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장헌세자 평양원유사건으로 부르기도 한다.

<표 5> 대구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인본의 시기별 분포

	경전류	의식집	다라니	문집	족보	사적류	소설류	비문	합계
종수	3	4	4	2	2	1	1	1	18종
비율(약%)	16.66%	22.22%	22.22%	11.11%	11.11%	5.55%	5.55%	5.55%	

경전류를 보면 大敎科의 교재인 『대방광불화엄경』과 隨意科의 교재인 『묘법연화경』과 정토종의 所依經典인 『불설아미타경』 등 가장 많이 읽고 활용되는 경전을 위주로 간행되었다. 의식집에는 염불의 공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화사의 전적 간행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기성 쾌선이라고 할 수 있다. 쾌선은 1727년에 대웅전을 중창하고 동화사 목조석가여래불좌상, 목조아미타불좌상, 목조약사불좌상 등을 조성할 때 證明으로 참여를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동화사 간행 전적 중 『팔공산동화사사적』(1732), 『대방광불화엄경』(1736), 『예참불호』(1736), 『불설아미타경』(1753)과 『왕량반혼전』(1753)의 합본 등에는 기성 쾌선이 모두 서문을 쓰고, 『대방광불화엄경』과 『예참불호』에는 교정도 함께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쾌선은 68세(1760)에 은해사 기기암에서 30여명과 염불결사를 하였고, 71세(1763년)에 다시 동화사에 돌아왔다. 이 때 『염불보권문』은 동화사로 옮겨 1764년에 관각을 마무리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쾌선이 1764년에 입적한 후에 제자들이 華岳山 鳳泉寺 雲住庵에서 1767년 기성당 쾌선이 지은 『念佛還餉穀』과 『請擇法報恩文』을 간행하여 책판은 동화사에 옮겨 보관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운주암에서 옮겨온 책판이 유실되고 없다. 이와 같이 18세기에 동화사에서 간행된 경전은 쾌선이 깊이 관여하였으며, 간행 전적의 주제에서도 쾌선의 염불문을 중시하는 정토신앙사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2 간행시기 및 판종별 분포

대구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된 고려시대 판본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조선시대 15세기부터 20세기 까지 꾸준히 출판활동이 지속되었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인본의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간행 인본의 종수가 18종 밖에 되지 않아 비율의 의미는 크지 않으나 18세기에 가장 많은 인본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대구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인본의 시기별 분포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계
종수	1	0	2	10	3	2	18종
비율(약%)	5.55%	0%	11.11%	55.55%	16.66%	11.11%	

판종별로는 목판본이 15종(83.3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목활자로 3종(16.66%)이 간행되었다. 이 중 목활자본은 사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간행된 불서가 아니라 문중의 족보가 2종 포함되어 있어 19세기 후반부터는 사찰로 문중의 출판의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3.3 간행처별 분포 및 간행인본 自劄 소장현황

대구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전체 18종의 전적 가운데 동화사에서 15종(83.33%)을 간행하였으며, 과제사, 부인사, 용연사에서 각각 1종씩(5.55%)을 간행하였다. 고려시대의 간행본은 알려진 바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는 동화사가 대구의 중심적인 사찰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동화사를 비롯한 용연사, 용천사 등의 사찰은 사찰에서 간행목판 뿐 아니라 족보 및 문집의 목판도 다수 보관하고 있었으며 책판 소장기록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하지만 이들의 책판은 현재 대부분이 유실되고 없다. 용연사에는 『진암집』 경판은 소장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禮說書인 『儀禮經傳通解補』와 『三峯集』, 『竹川集』, 『太華子稿』 등의 문집 경판이 현재에도 보관되어 있다. 이들의 경판은 모두 간행처가 미상인데 嶺營에서 간행하여 용연사에 목판을 보관하였을 수도 있고, 『진암집』과 같이 용연사에서 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7> 대구지역 사찰별 소장 책판 기록<sup>19)</sup>

관련문헌	동화사	용천사	용연사
冊板錄	杞溪俞氏族譜, 江陵金氏族譜, 獨石集, 海峯集, 龍溪集, 睡谷集, 兼山集	北窓集, 正庵集, 白江年譜	月沙集, 三峯集, 太華集, 立巖集, 晉菴集, 陰崖集, 竹川集, 水北集, 東里集
藏板考	三禮儀, 大千字, 兼山集	北窓集, 正庵集, 白江年譜, 畏齋集	月沙集, 三峯集, 太華集, 立巖集, 晉菴集, 陰崖集, 竹川集, 水北集
林園十六志	睡谷集, 兼山集, 龍溪集	北窓古玉詩集, 正庵集, 白江年譜, 畏齋集	月沙集, 三峯集, 太華集, 立巖集, 晉菴集, 陰崖集, 東里集

대구지역에서 전적을 간행한 각 사찰의 해당전적 및 책판의 소장여부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간행본 18종 중 간행 사찰에서 해당 책판과 인본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없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책판은 동화사에서는 『성불수구대다라니』(1866), 『불설일절여래보편광명염만칭정치성사유여의보인심무능승총지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1913) 2종의 다라니 목판뿐이었으며, 과제사의 경우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1648) 1종의 목판만이 남아 있다. 인본의 경우는 동화사의 『大方廣佛華嚴經』의 인본과 불복장에서 발견된 다라니 2종만 남아 있을 뿐이다.

19) 南權熙,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慶尙監營의 綜合的 研究』 (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291.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표 8> 대구지역 사찰의 간행본 현황 및 해당사찰 소장현황

	서명	간행년	간행처	판종	주제	自刹所藏 여부	
						책판	인본
1	妙法蓮華經	1436	동화사	木版本	경전류	×	×
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648	과계사	木版本	의식집	○	×
3	禪門祖師禮懺儀文	1660	부인사	木版本	의식집	×	×
4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燄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摠持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1703	동화사	木版本	다라니	×	○
5	觀世音菩薩本心微妙六字大明王眞言	1725	동화사	木版本	다라니	×	○
6	八公山桐華寺事蹟	1732	동화사	木版本	사적류	×	×
7	大方廣佛華嚴經	1736	동화사	木版本	경전류	×	○
8	禮懺佛號	1736	동화사	木版本	의식집	×	×
9	佛說阿彌陀經(諺解)	1753	동화사	木版本	경전류	×	×
10	王郎返魂傳	1753	동화사	木版本	소설류	×	×
11	念佛普勸文	1764	동화사	木版本	의식집	×	×
12	仁嶽集	1779	동화사	木版本	문집	×	×
13	晉菴集	1781	용연사	木版本	문집	×	×
14	淸州韓氏世譜	1859	동화사	木活字	족보	×	×
15	昌寧曹氏族譜: 侍郎公派	1862	동화사	木活字	족보	×	×
16	成佛隨求大陀羅尼	1866	동화사	木版本	다라니	○	×
17	娑婆教主釋迦如來利塔碑銘	1902	동화사	木活字	비문	×	×
18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燄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摠持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1913	동화사	木版本	다라니	○	×

#### 4. 맺음말

대구에는 현재 전통사찰로 19개의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간행사실 및 인본이 확인되는 사찰은 동화사, 부인사, 과계사, 용연사 등의 4곳이며, 확인된 간행본은 총 18종이다. 동화사에서 가장 많은 15종을 간행하였으며 나머지 세 곳의 사찰에서 각각 1종씩의 간행본이 확인되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불교 경전류에 해당하는 인본은 『묘법연화경』, 『대방광불화엄경』, 『불설아미타경』(언해) 3종이며, 의식집에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선문조사예참의문』, 『예참불호』, 『염불보권문』 4종에 해당한다. 나머지로 다라니 4종, 문집 2종, 족보 2종, 사적류 1종, 소설류 1종, 비문 1종 등이 있다. 판종별로는 목판본이 15종(83.3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세기 후반이후 부터는 목활자로 3종(16.66%)이 간행되었다. 이 중 목활자본은 사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간행된 불서가 아니라 문중의 족보가 2종 포함되어 있어 19세기 후반부터는 사찰로 문중의 출판의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에서 진적을 간행한 각 사찰의 해당진적 및 책판의 소장 여부를 살펴보면 간행본 18종

중 간행 사찰에서 해당 책판과 인본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없었다. 소장 책판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유실되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인본 또한 불복장에서 나온 다라니 제외하고는 사찰에 전승되는 인본은 1종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과거사에는 1987년 소장하고 있던 고서적 30권을 도난당하였고, 운흥사에서는 2010년에 복장유물을 도난당하기도 했다.<sup>20)</sup> 이렇듯 대구지역 사찰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적 간행 佛事는 간행 참여 명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시주 및 참여로 이루어지며 인력, 물력, 자원, 행정력(정치력) 등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불상과 불화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조성하지만 전적을 간행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이다. 또 사찰에서 간행한 전적은 그 사찰의 사상과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지역의 사찰에 대한 廢寺址 조사, 불상·불화 연구, 사찰건축물 연구 등에 비교할 때 간행 전적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고,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대구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된 전적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인본과 간행사실이 확인되어 사찰의 역사가 재조명 받기를 바란다. 또한 각 사찰에서는 自刹의 간행 전적에 관심을 기울여 선승들의 행적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성보박물관을 통해 간행전적의 수집과 보존에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慶北大學校 嶺南文化研究院. 『慶尙監營의 綜合的 研究』. 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대구: 국립대구박물관, 2009.
-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교민속문헌해제』.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 도쿄대학 소장 오구라문고 한국전적』. 서울: 보고서, 2018.
- 金宅主, 朴大鉉. 『大丘邑志』. 대구: 대구광역시, 1997.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16.
-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 문화재\_전국사찰 일제조사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I』. 서울: 문화재청, 2007.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 동화사. 『동화사 성보박물관 개관전』. 대구: 동화사, 2007.
- 류명환. 『역주 가람고』. 서울: 역사문화, 2016.
-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1輯 - 大丘直轄市·慶尙北道』.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6.

20)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16), 354-356.

-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범어사 정보박물관. 『梵魚寺의 典籍』. 부산: 범어사 정보박물관, 2018.
-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_2017 전국사찰 목판 일제조사 11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 서울: 문화재청, 2018.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14\_대구·경북의 전통사찰』.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0.
-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嶺南大學校 圖書館 所藏 古書目錄 - 陶南文庫』. 경산: 영남대학교 도서관, 2004.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이지범. 『초조대장경을 품은 팔공산 부인사』. 대구: 팔공문화원, 2017.
-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桐華寺·銀海寺의 佛教美術』. 서울: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7.

#### [논문]

- 南權熙.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慶尙監營의 綜合的 研究』 (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285-320.
- 박광현. “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 연구.” 博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7.12.
- 이중수. “18세기 기성괘선의念佛門 연구 -念佛門의 禪敎 껴안기.” 『普照思想』 제30집(보조사상연구원, 2008. 8). 143-176.
-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博士學位論文.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8.
- 增尾 伸一郎. “朝鮮本 『佛說廣本太歲經』考 - 朝鮮における道教受容と疑偽經典.” 『모산학보』 8(동아인문학회, 1996. 6). 775-802.
- 최형우.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60집(열상고전연구회, 2017. 12). 151-188.

#### [웹사이트]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eumeosa temple Museum. 2018. *Beumeosa's Ancient Books*. Busan: Beumeosa temple Museum.
- Choi, Hyung-woo. 2017. "A Study on Publication of 『Bogwunnymbulmon』 in Kyeongsang Area and Cultural Meaning of Gasa Works Enjoyment." *Yeola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60: 151-188.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Jogye Order of Korea Buddhism Cultural Heritage Research team. 2007. *Research Report Buddhist relic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I*. Seou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1986. *Research list of Korea old books I- Daegu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Seoul: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 Donghwas Temple. 2007. *Special Exhibition for the Opening of Donghwas Temple Museum*. Daegu: Donghwas Temple.
-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1976. *A complimentary list of Korea Buddhist old Book*. Seoul: Dongguk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 Institute of Youngnam Culture Research. 2004. *A comprehensive study on Gyeongsang-gamyeong*. Daegu: Institute of Youngnam Culture Research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Jogye Order of Korea Buddhism. 2016. *Enlarged Edition of Stolen Buddhist Cultural Properties*. Seoul: Jogye Order of Korea Buddhism.
- Jung, Hyung-Woo and Yoon, Byung-Tae. 1995. *The List of Wooden blocks in Korea*. Seoul: Bogyong culture company.
- Jung, wang-Kun. 2012. *A Bibliographical Study on 『Lotus Sutra』 Published in Cho-su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g-ang University.
- Kimteakjoo, parkdeahyun. 1997. *The history of town, Daegu*.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
- Lee, Ji-Bum. 2017. *Donghwas Temple in Mt. Palgong had the First Tripitaka Koreana*. Daegu: Palgong Cultural Center.
- Lee, Jong-su. 2008. "A Study on Chanting Buddhism of Kiseong Kueseon-Comprehension of Zen Buddhism and Non-Zen Buddhism Chanting Buddhism." *Journal of Bojo*

- Jinul's Thought*, 30: 143-176.
- Masuo Shinichiro. 1996. "A Study on 『GwangBonTaeSe-gyeong』 of the Joseon Dynasty." *Mo-San Journal*, 8: 775-802.
- Nam, Kwon-Hee. 2004. "Study on the books published by Gyeongsan-Gamyeong Provincial Offices and Book collection in Nakukjae." *A comprehensive study on Gyeongsang-gamyeong* (pp. 285-320). Daegu: Institute of Youngnam Culture Research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National Daegu Museum. 2009. *Donghwas Temple in Mt. Palgong*. Daegu: National Daegu Museum.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5. *Interpretation of Buddhist folk literature*. Seou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2018. *The Korean Book Collection of Ogura Bunko, The University of Tokyo*. Seoul: Bogosa.
- Park, Gwang-hun. 2017. *The study of GanGyeong-Dogam and the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by GanGyeong-Dogam*.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ark, Sang-guk. 1987. *Wooden blocks of the temple's in the whole Korea*. Seoul: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2018. *Report of Korea Buddhist Heritage, Research on temples Wood Block 11*. Seou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rchaeology and history of art. 2007. *Buddhist Art of Donghwas Temple · Eunhaesa Temple*.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rchaeology and history of art.
- Research Institute of Temples culture. 2000. *A series of traditional Buddhist temple 14 - Traditional Buddhist Temple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Seoul: Research Institute of Temples culture.
- Ryu, Myung-Hwan. 2016.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Garamgo*. Seoul: Historical culture.
- Yoon, Byung-Tae. 1972. *An Ancient Bibliography Chronicle of Korea*.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Youngnam University Library. 2004. *An ancient bibliography of NamJaeMoonGo at Youngnam University Library*. Gyeongsan: Youngnam University Library.